

2019 己亥年 새해에 말하다 '변해야 산다'

나일환 시인의 세상읽기



시인 한국지역연합방송 회장

기해년의 사자성어로 '마고소양' (麻姑蘇羊)을 선택했다. 마고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뜻으로 소원하는 데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나 구직자들이 선택한 마고소양의 사자성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기해년을 맞이하는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진행한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평화와 공존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성과를 기해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한다. 무술년의 숨막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몸부림들이 기해년에는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 남북문제는 경제와도 직결되어있고 외교 문제와도 연관되어 기해년의 핵심 화두이다. 그래서 기해년의 시작은 희망보다는 걱정이 우선하는 이유다.

무술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무등산에 새해가 떠올라 기해년의 새아침을 맞고 황금대지해가 시작되었다. 기해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한 지난 무술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큰 현실로 우리에게 닥아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였고 때론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를 안도의 숨을 쉬게 하기도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몸부림들이 바로 그 몫이었다. 남북간의 대화는 하나둘씩 현실로 이끌어내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서도 협상을 하고 공동 선언을 하면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그 회담이 실행에 옮겨지게 하기위한 몸부림은 정부나 온 국민들이 한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오는 불안감 또한 만만치 않다.

안보의 허점이 보이고 오직 남북문제에 몰입하여 경제가 역망이라는 여론과 함께 현실 또한 그리 되어 가고 있다는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이다. 기해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다. 사회는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져 있고 정치권은 우왕좌왕 흔들리는 모습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청년 일자리정책이 결실을 못보고 흔들리고 있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난제다. 기해년에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기업인들 모두가 합심하여 지금의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가 남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평화적과 공동 번영의 길에서 풀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주변 열강과 남북간의 불협화음이 작용하여 서로 신뢰감이 무너지면 엄청난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는 기획하고 실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하고 실속 있는 대책과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견제를 통한 실속 있는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는 기해년의 한해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헤쳐 나갈 수 있다. 새해가 되면 불합리한 모든 것들은 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함에도 너무나 불안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버텼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절 또한 강하다. 작은 땅덩어리에 자원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경제 열강에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과 힘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의 난국을 틀림없이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갈등은 없어야한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없어야한다. 서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정당 간에는 당파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며 한마음으로 오직 조국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온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는가? 예로부터 우리는 당파싸움과 함께 기독교의 부패로 인한 사회가 우리를 몇 번이나 주변 열강에 허점을 보여주어 우리의 주권마저 빼앗겨버리는 참혹함을 겪었다. 이제는 그리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민성도 문제가 되어버렸다.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고 정권마저 흔들려 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한다. 기독교 부류들은 기독교를 버려야하고 소수의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하며 대의를 위해 우리는 희생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인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인을 통해서 집행할 뿐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례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변해야한다. 정치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면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 하면서 국민들의 세수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에 국회의원들은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되어야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변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기해년 새해에 새로운 꿈을 꾸며 기대를 해야 하는데 새해에 국민들은 소원을 빌기보다는 지난해 이루지 못한 꿈들의 연장에서 결과를 내기위한 새로운 활력을 찾아 몸부림 쳐야 한다. 새해 붉은 해가 떠오르는 동녘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기해년 새해에는 다른 해 보다는 좀 더 긴장해야하고 불안한 정국을 해소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社說

결국 강제구인 당하는 전 前 대통령, 부끄럽지 않은가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前 대통령에게 결국 구인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를 심판하기 위해 재판은 열었으나 피고인 전 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로 잡혔던 첫 공판기일에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참을 알렸고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고열과 독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은 사전 약속한 대로 재판은 열었으나 피고인 부재로 인정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다음 재판 날짜를 3월 11일로 정한 뒤 마무리했다.

전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혹사라고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판부가 건강상 이유 등의 변명이 나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형사 재판은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과는 달리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파면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도

18 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이미 내놓았다. '광주에서 헬기 기총사사는 없었다'는 전 씨 측이나 군 당국의 기존 주장이 전일빌딩 탄흔 등 확실한 증거로 뒤집힌 지도 이미 오래다.

전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집행과 관련해 1997년 이미 내란 목적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의 영령과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반성의 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특조위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광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성직자에게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집행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 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그의 부인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다. 이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온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광주 시민을 농락해도 유분지,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다.

전 씨는 다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개를 치러야 한다. 전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언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 구인장이 발부됐으니 전 씨는 어차피 광주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독자 기고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아시나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미비한 부분은 자진개선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별조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비상시 사용돼야 할 비상구가 폐쇄·훼손돼 화재 시 대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곳을

중중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하지만 최근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가 방화문을 영업·편의를 위해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진자 위 급상향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라서 담양소방서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첫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 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될 것이다. 황금대지 기해년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고 보다 더 안전한 전남이 되기를 바란다.

/김달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색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광안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장성	부장	정운섭	010-3640-6323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식	010-3608-2634	함평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